

수목은 고현정, 주말은 전지현...톱스타들 드라마로 안방 복귀



고현정

고현정, 2년만에 TV 출연
JTBC '너를 닮은 사람'
욕망에 충실했던 회주 역

한동안 브라운관에서 얼굴을 보기 힘들었던 톱배우들이 가을 저녁 새 드라마를 통해 안방극장을 찾는다.
18일 방송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첫선을 보인 JTBC 수목드라마 '너를 닮은 사람'으로 2년 만에 복귀하는 고현정에 이어 오는 23일에는 tvN 토일드라마 '지리산'으로 전지현이 시청자들을 만난다.
첫발을 먼저 뗀 '너를 닮은 사람'은 인간 내면을 들여다보는 무게감 있는 이야기로 고현정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드라마는 아내와 엄마라는 수식어를 버리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던 여자 '정희주'와 과거 그와의 짧은 만남으로 인생을 빼앗긴 또 다른 여자 '구해원'의 이야기다.
고현정은 가난하고 치열했던 젊은 시절을 보냈지만, 현재는 성공한 화가이자 에세이 작가인 회주로 분했다. 상대역 해원은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장겨울 역으로 주목받은 신현빈이 맡았다.
지난주 방영된 1·2화에서는 부족할 것 없이 여유로운 삶을 사는 회주가 딸의 미술 교사인 해원의 등장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과정이 담겼다. 회주가 무언가를 옮기고 바닥에 툇 핏물을 닦아내는 과거 회상 장면도 극에 미스터리 요소를 더했다.
고현정은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서늘하게 회주라는 인물을 연기하며 복잡한 사연을 숨기고 있는 심리를 설득력 있게 전했다. 그와 호흡을 맞춘 신현빈도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극에

전지현, 5년만에 시청자 만나
tvN 미스터리물 '지리산'
조난사고 구조대 레인저 역

몰입감을 더하며 균형을 맞췄다.
고현정과 신현빈의 열연에도 다소 무거운 분위기 탓인지 시청률은 2~3%대에 그쳤지만, 이번 주 방영되는 3화부터는 인물들의 얽히고설킨 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시청률 반등을 노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말에는 오랜만에 브라운관에서 전지현을 만날 수 있다. 2017년 1월 종영한 '푸른 바다의 전설' (2016~2017) 이후 약 4년 9개월 만이다.
전지현은 스타 드라마 작가인 김은희의 신작 '지리산'에서 산악 조난사고 때 활약하는 레인저라는 낯선 직업을 연기한다.
'지리산'은 국립공원 최고의 레인저 서이강(전지현 분)과 신입 강현조(주지훈)가 산에서 일어나는 의문의 사고를 파헤치는 내용이다. '싸인', '시그널', '강남' 등의 대본을 쓴 김 작가의 장기를 살린 미스터리물이다.
자칭 '날다람쥐'라며 등산에 자신감을 보여온 전지현이 '별에서 온 그대' (2013~2014)의 천송이와 같이 또 다른 '인생 캐릭터'를 탄생시킬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공개된 예고편에서 전지현은 폭풍우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쏟아지는 비로 범람하는 계곡, 위험천만해 보이는 암벽을 헤치고 구조활동에 나선다. 이야기의 긴장감과 더불어 사계절의 지리산 풍광을 볼 수 있는 것도 즐길 거리로 꼽힌다.



전지현

드라마 주역들, 예능까지 접수하다

'펜트하우스' 엄기준 등 '해치지 않아'
'슬기로운...' 조정석 등 '산촌생활' 출연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예능까지 접수했다.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악당 3인방으로 활약한 엄기준, 봉태규, 윤종훈은 예능 '해치지 않아'에,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99학번 동기 '99즈'로 불린 조정석, 유연석, 정경호, 전미도, 김대명이 예능 '슬기로운 산촌생활'에 출연해 드라마에서와는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 주요 방송사의 클립 VOD(주문형비디오)를 온라인에 유통하는 스마트미디어랩(SMR)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2일 '해치지 않아'와 '슬기로운 산촌생활'의 클립 조회수는 각각 360만회, 172만회를 기록했다.
두 예능 모두 tvN 프로그램으로 도시를 떠나 한적한 곳에서 출연진들이 직접 음식을 해 먹고, 여유를 즐기는 힐링 콘텐츠다. '해치지 않아'는 지난달 28일, '슬기로운 산촌생활'은 이달 8일 처음 방송됐다.

'해치지 않아'는 시즌3까지 방영된 드라마를 인연으로 실제 친분을 쌓은 엄기준, 봉태규, 윤종훈이 전남 고흥의 한 빈집을 '힐링 아지트'로 만들고, 평소 고마웠던 지인들을 초대해 대접하는 일상을 담는다.
나영석 PD의 새 예능인 '슬기로운 산촌생활'은 시즌2를 마친 99즈가 훌거운 마음으로 힐링 여행을 떠나는 콘셉트다. 이들은 드라마를 촬영하며 느꼈던 부담감 등 속내를 드러내며 종영의 아쉬움을 달래기도 했다.
두 예능은 드라마로 이미 검증된 출연자들의 케미(궁합)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을 톡톡히 활용한다. 드라마 캐릭터와는 다른 배우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도 시청자들에게는 새로운 재미다.
가장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한 클립 영상을 보면 '해치지 않아'의 경우 드라마에서 엄기준과 함께 펜트하우스에 살던 가족들이 극한 노동에 시달리는 장면이 차지했다. 이 영상은 조회수 30만9000회를 기록했다.
'슬기로운 산촌생활' 영상 가운데는 게스트로 나온 드라마 속 99즈의 동기 유연석이 목수가 돼 의사, 목집 등 99즈의 생활용품들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30만2000회 재생되며 가장 높은 조회 수를 기록했다.



'해치지 않아'



'슬기로운 산촌생활'

'베놈2:렛 데어 비 카니지'
개봉 첫 주말 100만 돌파 정상에

빌런 히어로 '베놈2:렛 데어 비 카니지'가 개봉 첫 주말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
1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베놈2:렛 데어 비 카니지'는 지난 주말 사흘(15~17일) 동안 77만8000여명(매출액 점유율 81.4%)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개봉 5일째인 17일 100만 관객을 돌파한 데 이어 누적 관객 109만6000여명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개봉 첫 주에 1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는 '블랙 위도우'와 '분노의 질주:더 얼티메이트' 뿐이다. 올해 외화 최고 흥행작인 '블랙 위도우'는 4일째, '분노의 질주'는 5일째 100만 기록을 세웠다. 2주 동안 정상을 지켰던 '007 노 타임 투 다이'는 큰 격차로 떨어지며 2위로 물러났다. 같은 기간 6만5000여명(6.7%)을 더해 누적 관객은 115만여명이다.
추석에 개봉한 한국 영화 '보이스'와 '기적'이 3~4위를 지켰다.
범죄 액션 영화 '보이스'는 3만4000여명을 더해 누적 관객 135만1000여명을 기록했고, 실화를 모티브로 한 드라마 '기적'은 1만8000여명의 관객을 모아 누적 관객은 65만5000여명이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